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10월호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지키기"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 10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포함되면서부터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기후변화 대응TF'를 조직하였다. 기후변화 대응TF는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세미나,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전염병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월 23일과 24일에는 국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와 한국경제신문 등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대응 주요 과제별 국회정책 심포지엄'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서 9월 24일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이라는 주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및 전망'(발표 : 아주의대 장재연 교수)과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발표 : 질병관리본부 강영아 연구관)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곤충 생태 전문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한 건강분야 적응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4일간(9.26~29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에서는 '2008 대한민국 기후변화 박람회(ECO2 KOREA 2008)'가 개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지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건강관리 요령을 홍보하고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목 차

01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지키기

03 국제행사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국제 심포지엄

04 국제협력
신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에 신영수 교수 당선

06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과학적인 질병관리로 미래 보건 한국을 열어가는 질병관리본부의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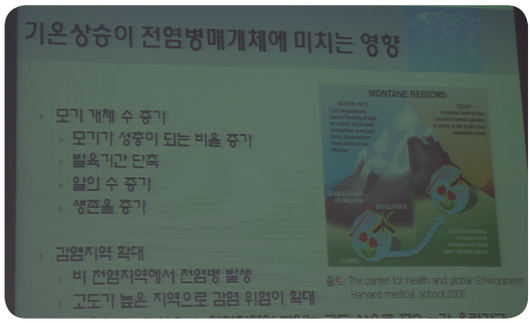
08 팀소개
약제내성팀

10 여기는 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12 주요행사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간 협력협정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 만들기 운동"
인체유래자원은행 표준운영매뉴얼 및 정도관리매뉴얼 개발연구 공동 심포지엄

이소담
전염병관리팀
kcdc80@hanmail.net

이 홍보부스에는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표본, 살아있는 모기 유충과 성충, 진드기를 전시하여 특히 어린이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하고 손소독제와 코인티슈를 배포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 기후변화대응 주요 과제별 국회 정책 심포지엄

–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 –

일시 : 9월 24일(수) 12:00 ~ 15:00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좌장 : 박윤형 교수(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시간	프 로 그 램	
13:00 ~ 13:05	■ 인사말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13:05 ~ 13:25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및 전망	장재연 교수 (아주의대 예방의학교실)
13:25 ~ 13:45	■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	권준욱 팀장 (기후변화 대응TF) 강영아 연구관 (기후변화 대응TF)
	■ 지정토론	
13:45 ~ 13:55	• 정해관 교수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13:55 ~ 14:05	• 김현경 사무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14:05 ~ 14:15	• 공우석 교수 (경희대 지리학과)	
14:15 ~ 14:25	• 이화경 담당관 (서울특별시 보건정책담당관)	
14:25 ~ 14:35	• 박미자 과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14:35 ~ 14:45	• 박기연 간사(한국로하스협회)	
14:45 ~ 15:00	■ 공개토론	

· 정책심포지움 참여기관 ·

참여기관	주 제
소방방제청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대응계획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방안
전국경제연합회	산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 대책에 대한 공청회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부산대학교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의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과 REDD, 바이오에너지 활용방안
그린카 클린시티 컨소시움준비단	자동차산업의 대체에너지 법제화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국제연합	2010 기후변화 체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

국제행사

양정선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okeyang@empal.com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Pandemic Influenza Vaccine Development in Korea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전략의 일환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백신개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 예방백신의 국내개발과 관련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예방백신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국외 초청 연자로는 미국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의 R. Webster 박사,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의 J. Katz 박사, 일본 국립예방위생 연구소(NIID)의 M. Tashiro 박사, 베트남 국립예방역학연구소(NIHE)의 L. Mai 박사등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이윤정 박사, 목암생명공학연구소의 박송용 박사, 연세대학교의 성백린 교수, 질병관리본부의 강 춘 팀장 등이 초청되었다.

심포지엄 내용은 최근 발생중인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국내외 특징에 대한 내용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개발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및 전 세계적인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이 발표되었다. 특히 2008년 국내에서 발생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 및 국내에서 진행 중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개발 및 진행상황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국내외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연구자들 및 국내외 백신 제조 회사, 대기업, 벤처 기업 연구원들과 대학교 소속의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최신 연구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였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및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제협력

신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에 신영수 교수 당선

지난 9월 22일(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기구의 지역수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59차 WH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한국의 신영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65)가 차기 서태평양지역(WPRO) 사무처장(Regional Director)으로 당선되어 내년 초부터 5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신영수 교수는 지난 1989년부터 10년 동안 재임한 한상태(81)박사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WHO 지역 사무처장을 맡게 되었다.

이번 사무처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후보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의 티 박사(Dr. Tee Ah Sian), 통가의 탕기(Dr. Viliami Ta'u Tangi) 부수상 겸 보건장관 등 3명이 입후보 하였으며, 이들 두 나라는 각각 ASEAN과 태평양 섬나라를 기반으로 막강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터라 선거전은 그 열기가 뜨거웠다.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 회원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지 교섭 활동을 벌여왔다. 신영수 후보는 서태평양 지역내 회원국에 대한 순방은 물론, 이들 회원국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태평양 도서국가 (30개 회원국 중 14개국) 보건장관 국내 초청행사 등을 통해 *서태평양 도서국가와 개발도상국가들의 보건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별히 *일차보건의료 (Primary Health Care)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했던 정보통신 기술(Strengthening PHC through IT)에 대해* 한걸음 발전된 우리나라의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에 대한 컨퍼런스를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와 그 성과를 나누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자국에 돌아가 적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지혜를 배우는 등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서태평양 도서 및 개발 도상국가의 보건 수장들은 입을 모았다.





WHO는 전 세계에 6개 지역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서태평양지역 사무처는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30개 회원국 18억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의 대부분은 베트남, 라오스, 몽고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례의 다수 발생, 뎅기열 등 각종 전염병 발생과 기후온난화로 인한 태평양 섬나라 지역만의 보건 문제를 안고 있다.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의 역할은 보건제도의 기초조직 및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로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역 내 1차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일에서 부터 시작하여, 예방접종 등의 질병예방 및 타 지역사무처와의 협의를 통한 국제 기준 설정, 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 · 연구 · 전문가 파견 등이다.



신영수 교수의 사무처장 당선에 따라서 WPRO가 적극 추진 중인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의무기록) 사업 등에 한국측 진출 촉진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IT 산업 관련 기업의 서태평양지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WPRO나 WHO 본부의 외주용역을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맡아 국제적인 연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WHO 본부 및 WPRO 사무처의 한국인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말라리아 등 전염병공동연구 및 질병퇴치사업, 백신 · 결핵약품 등 의약품 지원, 기술훈련 및 자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이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과학적인 질병관리로 미래 보건 한국을 열어가는 질병관리본부의 자화상

❖ 질병관리본부가 걸어온 길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해 온 국가 질병 연구관리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역사는 1895년 고종의 칙령으로 설치된 위생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2년 조선통독부 경무국 위생과에 설치된 세균실과 1935년 설립된 보건원 양성소를 거쳐, 1945년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등으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던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 통합되어 국립보건원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월 국가질병연구관리의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확대 개편되어 출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전염병대응센터, 질병예방센터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유전체센터 등 1원, 6개 센터, 33개 팀 및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1,020 여명의 전문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가 가는 길





▷ 국가 질병 지표의 관리

*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군 6종, 제2군 10종, 제3군 18종 등 지정 전염병에 대하여 전국 지역 보건소와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빠르고 정확한 전염병 예방과 분석 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아토피, 천식 환자의 조사감시를 실시하고, 최근 사망원인 1위인 심 · 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의 통계자료 생산과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역학조사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생물테러 등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중보건상황에 대비한 '전염병 신속 대응반'을 상시 운영하여 대규모 유행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전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하여 전염병 위험요인 규명 연구, 역학조사 기술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수행하며, 2000년부터 전염병 역학조사와 감시 등을 수행할 전문요원인 '역학조사관'을 꾸준하게 양성 · 배출하고 있다.

▷ 전염병관리

*신종전염병 관리*를 위해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의 확대 지정 및 해외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한 · 중 · 일 3국의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배송미
결핵호흡기세균팀
songmee@korea.kr

*인수공통 전염병관리*의 경우 전국 브루셀라증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2005년 프리온 질환인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전용 생물안전실험실(BL3)과 2006년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용 부검센터를 개소하여 국내 CJD 환자 진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인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손씻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매개체 전염병관리*를 위해 대북 말라리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쯔쯔가무시 다발생 지역 주민대상 면역조사를 시행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전국 보건소를 통한 질병매개곤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지원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활성화*의 일환으로 에이즈 검사 및 상담 홍보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꾸준한 예방접종관리 사업 결과로 2006년 국가홍역퇴치를 선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 질병연구

국내에서 유행하는 *주요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기술로 유행병원체의 특성기초연구, 진단 · 예방 ·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면역이상 질환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내성균 확산방지와 적정 항균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약제내성 실태조사, 내성기전규명 및 임상연계연구와 함께 탄저균을 포함한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신속탐지와 진단, 환경감시, 면역학적 특성 기초 및 응용연구를 추진하여 차세대 백신 및 백신 후보물질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인수공통 감염병 기반연구, 만성질환연구 및 희귀질환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전체 질환 관련성 분석, 질환가계를 이용한 연쇄성 분석, 유전자의 생체 내 기능연구와 질환유전체 관련 생물정보처리 연구를 통한 국가 질병지표를 발굴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가 나아갈 길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오송생명과학단지 이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질병 및 건강관리기관으로써 *「선진 보건 한국의 완성」*이라는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목표를 향해 야심 차게 도약할 계획이다. 희망의 대한민국, 그 중심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올바른 건강지식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 창의적인 인재 개발을 위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국민보건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질병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선진보건 한국을 책임지기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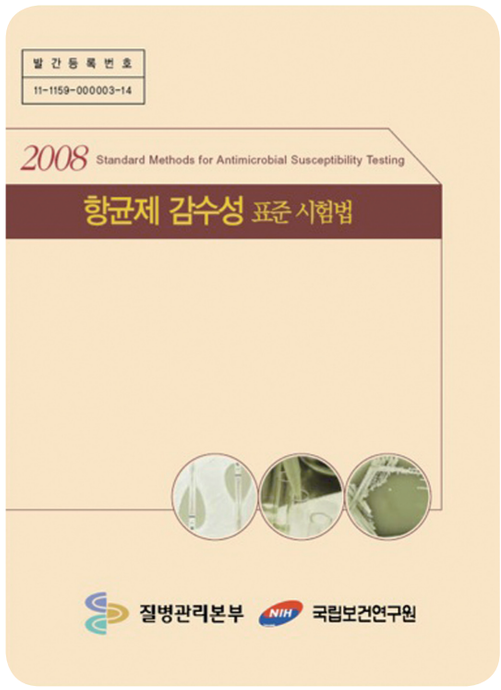
모든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근거와 과학적 중심(evidence and science based)의 올바른 건강지식, 정책 및 보건서비스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 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 창조적(Creative)이며, 역동적(Dynamic), 도전적(Challenging) 긍정적(Positive)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팀소개

약제내성팀

약제내성팀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ESBL (Extended spectrum β-lactamase) 생성 그람음성간균 및 아졸계 내성 칸디다 등 주요 항균제 내성 병원체에 관한 내성기전 및 진단법 개발 연구와 실험실 표본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균제 내성모니터링 사이트를 통해 항균제 내성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운영과 예방을 위한 중재연구 등을 통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병원감염의 국가적 관리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세균성 성병 국가표준실험실로서 세균성 성병진단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선 보건기관의 성병 진단 업무개선 및 정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요 연구 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항균제 내성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다제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증가하면서 환자 치료를 위한 항균제 선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항생제 처방 근거 제공과 내성기전 규명하기 위한 항균제 내성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성균의 확산방지를 위한 분자역학 특성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 및 지역사회 내 항균제 내성실태를 조사하고 항균제 감수성 표준시험법을 확립, 제공하고 있으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및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ancomycin Resistant Enterococci: VRE)등에 대한 내성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하여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MRSA와 기회감염의 주요 원인 진균인 칸디다균에 대한 내성관련 단백질 규명을 위한 연구, 대표적인 그람음성 병원감염균인 녹농균과 아시네토박터에 대해서는 다제내성 형질 발현에 중요한 efflux system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감염증 원인균에 대한 내성실태 조사 및 치료지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균, 결핵균, 진균,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등에 대한 내성실태 및 다제내성기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경민
약제내성팀
kmlee@nih.go.kr

❖ 병원감염감시체계 운영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에는 증상이나 감염증의 잠복 상태가 아니었던 감염증이 입원 후 또는 퇴원 후에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감염은 환자, 의료진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점차 중요한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효율적인 병원감염 관리는 신뢰성 있는 병원감염 지표산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전국 병원감염 감시체계 (*KONIS*; Korean Nosocomial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한 업무지침서에 따라 감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병원감염 감시결과는 인터넷 (http://konis.cdc.go.kr)을 통해 분기별, 연도별 결과를 제공되며, 병원감염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여 병원감염의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연구 성과를 일반인, 국내 전문가들에게 알리고 있다.



❖ 약제내성세균 국가 표준실험실 운영 및 세균성 성병 진단체계 구축



내성세균의 국가 표준 실험실로서 지난 2000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감염증이 표본감시전염병으로 지정된 후, 반코마이신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 VRSA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2001년부터 해마다 8주간 또는 12주간으로 구분하여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험실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VRSA외에 VRE 등 항균제내성 세균의 확인진단과 검사법의 표준화, 병원체 진단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선 보건관련기관 교육을 통해 임균, 클라미디아, 매독 등 세균성 성병실험실 진단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CDC/WHO/PAHO의 협력기관으로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관하는 매독 혈청검사 정도관리에 참여하고, 16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매독혈정검사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는 검역소

21C 동북아 액체물류중심항만 '울산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립울산검역소-



국내 최대의 산업수도이자 친환경 생태도시인 울산. 그중에서도 옛 고래잡이 전진기지로 유명한 장생포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울산검역소는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전파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립울산검역소는 국립부산검역소울산주재소(1964.7.1.설치)를 시작으로 1967년 11월 30일 국립부산검역소울산지소로 개칭되었으며, 1969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4419호에 의해 국립울산검역소가 신설되었다.



현재 박용식 소장 외 22명(공중보건의사 1명 포함)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할 검역구역은 5개항(울산항, 온산항, 장생포항, 미포항, 방어진항)으로 검역전염병 및 신종 · 재출현 전염병의 국내 유입 · 전파방지가 주요 임무이며 해외유입 감염병 및 매개체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검역구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 및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 365일 코너 선박위생관리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연중 휴무없이 신속히 발급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운영』『방문 국제공인예방접종 서비스 국제공인예방접종을 희망하는 20인 이상의 선원, 여행객, 단체 등을 위한 방문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실시』, 『민원처리 SMS 문자전송 서비스 민원신청 접수, 발급 등 정보를 SMS 문자전송을 통해 처리과정 공개 서비스 제공시행』등 다양하고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속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2008년도 국립울산검역소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제안마당을 운영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를 지원 · 운영하고 있다.

❖ 해외유입전염병매개체 및 병원체 조사 등 연구사업을 통한 감영병 유행 예측력 제고

울산항만 내 해외유입병원체 및 전염병 매개모기 밀도조사, 매개체 방제등을 통하여 전염병매개체 · 병원체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감염병 유행예측을 통해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으며 검역구역 내 전염병 매개모기 대량서식처로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모기유충서식 방지를 위한 폐타이어 파공작업 및 야적장 청소 등 기타 위생환경 관리 지도 · 점검을 병행하는 등 발생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희경
국립울산검역소 서무과
hkkim12@korea.kr

❖ 지역 축제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전염병 예방홍보 추진 및 전염병교육강좌 개설운영

울산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고래축제, 물축제 등)를 활용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염병 발생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홍보하고, 전염병 발생이 빈번한 하절기에는 울산역, 울산공항, 버스 터미널, 공원 등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홍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검역 및 전염병 예방관련 등의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검역관련 관계자, 유관기관, 해외여행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시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정확도 100%의 세균검사 업무 수행 및 말라리아 무료검사 실시

선박의 가검물은 물론 검역구역 내 해 · 하수 및 식품접객업소 가검물 등에 대한 신속한 수거 및 배양을 통해 정확하고 철저한 세균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대한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일본뇌염바이러스를 분리 · 검출하는 등 유행예측과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 외국여행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을 여행한 선원, 승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열대열 말리리아)를 진단하기도 하였다.

❖ 검역 골든-벨 대회를 통한 내부 역량강화

2008년 7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립울산검역소 전 직원이 참가하는 검역 골든-벨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검역법 등 검역업무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퀴즈 프로그램 형식으로 학습하여 즐겁고 의욕적인 직장분위기가 조성되고 만족도도 극대화 되었다.



❖ 울산항의 오늘과 내일 – 울산항만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검역수요 증가 예상

울산항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화학단지로서 SK, S-OIL 등 2개의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비철금속, 정밀화학, 펄프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역이다. 울산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온산지역에 2011년까지 일반부두 28선석, 컨테이너부두 4선석 총 32선석을 개발하는 등 울산 신항만을 추가로 건설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 검역수요로 인해 국립울산검역소의 활동 무대가 넓어질 전망이다.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apotre@hanmail.net

주요행사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간 협력협정 체결



지난 9월 12일에는 병원감염관리사업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의 협력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간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었다.

병원감염은 치료의 전문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병원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병원감염 원인 균의 대부분이 다제내성을 나타내고 있어 환자의 치료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병원 감염 관리사업의 지침개발,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고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와 협력하여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위한 전문적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문의 : 전염병관리팀 김미경 (380-2635)〉

❖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GWP: great work place) 만들기 운동"

GWP 운동은 리더십 평가 및 조직문화 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신 조직문화 운동이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추진될 예정인 이 운동은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 조사를 통한 조직진단으로 시작되었다.

훌륭한 일터의 조직문화를 가꾸어 가고, 직장을 보다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 설계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GWP 운동은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그 성패를 좌우 하는 것이므로 검역소를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문의 : 총무혁신팀 김지영 (380-2603)〉

❖ 인체유래자원은행 표준운영매뉴얼 및 정도관리매뉴얼 개발연구 공동 심포지엄 – 한국인체자원중앙은행팀

인체자원은행 운영매뉴얼 개발 사업과 인체자원 정도관리 표준프로토콜 개발사업에서 작성된 결과물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에게 이에 대한 검증 및 자문을 얻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 인체자원중앙은행의 역할과 운영 매뉴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10. 1. (수), 14 : 00 ~ 18 : 00, 한림대학교 청량리 강의동 1층 세미나실

〈문의 : 한국인체자원중앙은행팀 남정민 (380-2271)〉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10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10월(통권 제11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